

##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직접투자 현황 및 시사점

|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|    |
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|
| I. 들어가며 .....                 | 1  |
| II. 해외자원개발 투자현황 .....         | 3  |
| III. 투자 성과 .....              | 8  |
| IV. 중국, 일본 공기업의 자원개발 현황 ..... | 12 |
| V. 문제점 .....                  | 14 |
| VI. 향후 자원개발 추진 방향 .....       | 18 |
| ※ 참고자료 .....                  | 23 |

작성 : 책임조사역 김유신 (3779-6667)  
echis@koreaexim.go.kr

책임연구원 성동원(3779-6680)  
dwsung@koreaexim.go.kr

확인 : 해외투자분석팀장 모창희 (3779-6664)  
chmoh@koreaexim.go.kr

## < 요약 >

### I. 조사 배경

- 에너지 및 주요 자원에 대한 수입 의존적인 우리경제는 지속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 자원확보가 필요한 바, 이를 위해서는 해외자원개발이 필수
  - '11년 에너지 및 6대 광종 해외 수입액은 1,678억불로서 전체 수입액의 32% 차지, 유가 10달러 상승시 110억불 무역수지 적자 발생
- 또한 자원개발사업은 투자규모가 거액이고 사업 리스크가 높은 사업인 점에서 공공 부문을 통한 투자가 요구되는 분야
- 현재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가 누적기준으로 60% 이상이고 최근 비중도 70%를 상회하고 있어 공기업의 자원개발역할이 확대되고 있는 바, 공기업의 자원개발 현황 분석을 통한 향후 자원개발 추진 전략 마련 필요

### II.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

#### 1. 일반현황

-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액은 '11년말 기준 194.6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자원개발 누적투자 금액의 61.6% 차지
  -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·전문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최근 투자가 크게 증가

#### 공기업 해외자원개발 동향

(백만불)

|             | '07   | '08   | '09   | '10   | '11   | 누적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공기업(A)      | 821   | 1,825 | 4,167 | 5,699 | 5,209 | 19,458 |
| 전체(B)       | 2,054 | 4,092 | 5,440 | 7,295 | 7,464 | 31,565 |
| 공기업 비중(A/B) | 40.0% | 44.6% | 76.6% | 78.1% | 69.8% | 61.6%  |

□ 누적 기준으로 총 31개국 앞 97개 현지법인 설립

- 상위 5대 투자국가는 캐나다(48억불), 영국(39억불), 미국(14억불), 호주(17억불), 네덜란드(3억불) 순

## 2. 주요 특징 (누적 기준)

□ (기관별) 총 10개 공기업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

- 석유공사, 가스공사, 광물자원공사 3개 공기업의 투자금액이 전체 공기업의 94% 차지

□ (투자 규모) 투자의 대형화

- 공기업의 현지법인(사업)별 평균 투자금액은 263백만불로 민간기업의 현지법인(사업)별 평균 투자금액 22백만불의 12.1배

□ (지역별) 선진국 위주 투자

- 공기업은 북미 37.4%, 유럽 28.4%로, 민간 기업의 아시아 24.0%, 북미 22.6%, 중남미 22.8%에 비해 선진국 투자 비중이 높음.

\* '11년도는 북미 40%, 유럽 26% 차지

□ (투자 유형별) 생산광구 · M&A 위주의 단독투자 주력

- 초기에는 투자비가 낮은 탐사 광구 중심으로 외국기업이나 국내 민간기업과 공동투자를 하였으나, 최근 자주개발될 도모를 위해 생산광구나 자원 기업 M&A에 공기업이 단독으로 투자하는 비중 상승

- 공기업은 단독투자가 68.3%에 달해 민간기업 31.8%의 2배 이상

\* '11년도는 단독투자가 79% 차지

□ (업종별) 원유 및 천연가스 투자가 대부분 차지

- 공기업은 원유 · 가스 86.2%, 석탄 6.1%, 기타 비철금속(니켈, 구리, 동 등)이 5.7%, 우라늄 · 토륨 1.3%로, 민간 기업의 원유 · 가스 61.7%, 철 13.1%, 석탄 11.6%에 비해 원유 · 천연가스 투자 비중이 더 높음.

\* '11년도는 원유 · 가스 90% 차지

- 최근 셰일가스 광구, 석탄층 메탄가스 등 비전통자원 투자도 증가

### Ⅲ. 투자 성과

#### 1. 자주개발률 제고

□ (석유·가스) '07년 4.2%에서 '11년 13.7%로 상승

- 공기업이 추진한 생산광구 인수 및 M&A가 주된 요인

\* 자주개발률: 국내외에서 개발한 자원의 총생산량 / 자원 총 수입량

□ (6대 전략광물) '07년 18.5%에서 '11년 29.0%로 상승

- 광물자원공사 등이 유연탄, 철, 동, 아연, 우라늄, 니켈 등 투자
- 특히, 한전 등의 우라늄 확보 본격 추진으로 자주개발률이 '07년도 0%에서 '11년 6.5%로 증가

□ (리튬·희토류 등 희유금속) '07년 6.1%에서 '11년 12%로 상승

- 2차 전지의 원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 칠레·아르헨티나 리튬광산에 신규 진출, 중국과 남아공지역의 희토류 광산 진출

#### 2. 공기업 대형화 및 자원개발 역량 확충

□ 해외자원개발 자산 규모 크게 증가

- '11년말 기준으로 총자산 대비 자원개발 투자잔액 비중은 석유공사 64.4%, 광물공사 34.4%, 가스공사 9.4% 로서 '07년도 비중(각각 15.0%, 1.8%, 9.2%)에 비해 크게 상승

□ (석유공사) 대형화를 통해 '07년 90위권에서 '11년 70위권 진입

- '08~'10년간 생산광구 중심 자산 및 기업 M&A에 집중 투자

□ (가스공사) '10년부터 투자 본격화로 Value Chain 확대 추진

- 모잠비크 초대형 가스전 발견, 이라크 운영사업자로 최초 진출

□ (광물자원공사) 지역별 특화 광종 거점화 마련

- 미주 지역 동, 호주 유연탄, 아프리카 니켈 등 희유금속

## IV. 일본, 중국 공기업의 자원개발 현황

### 1. 중국

#### □ 국영석유기업(NOC) 중심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

- 3대 국영석유기업(CNPC, CNOOC, Sinopec)을 중심으로 국제석유기업과의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국가를 선정하여 생산자산 및 기업 M&A 확대
  - '09년 해외 석유·가스 광구 자산 M&A 투자액은 182억 달러로 전세계 투자액 1,440억불 중 13% 차지, '10년에는 294억불 투자
  - \* 3대 국영기업의 E&P 투자금액: '08년 330억불 → '11년 487억불
- 중국개발은행(CDB)과 중국수출입은행은 NOC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는 등 투자 파트너의 역할 수행
  - 자원부국에 대규모 차관을 제공하고, Loan-for-oil/gas 계약을 체결하여 석유·가스의 장기공급 확보에 기여
  - \* 원유나 가스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자원담보부 차관

### 2. 일본

#### □ INPEX를 중심으로 민간, 정책금융기관 공조 통해 자원확보 추진

- 메이저급에 준하는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통합을 통해 국영기업 INPEX 대형화를 추진하여, 현재 50위권의 석유기업으로 성장
  - INPEX는 현재 일본석유기업 전체 생산량의 약 35%를 담당
  - \* INPEX의 E&P 투자금액: '08년 29억불 → '11년 31억불
- INPEX를 중심으로 하되, 민간 주도 원칙으로 자원개발 효율성 추구
  - 민간기업 대부분은 종합상사들로 최대 강점인 해외네트워크를 활용
- 정책금융기관들이 공조하여 중장기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하여 신속하게 거액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
  - JOGMEC은 탐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직접 출자 서비스 제공, JBIC은 주로 융자를 통한 자금지원

## V. 문제점

### □ 자원 메이저 기업의 부재와 상대적인 투자 영세성

- 최근 석유공사의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메이저 기업 대비 생산규모, 기술력 및 정보력, 사업추진 경험 측면에서 열세
  - 생산규모(b/d): ExxonMobil 등 메이저 250만, 석유공사 22만
  - 탐사성공률: 메이저 20~30%, 국내기업 10%
  - 과거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부분 단순 지분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져, 사업권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한 사업경험 부족
- ExxonMobil, Shell 등의 슈퍼 메이저급 1개 사의 연간 E&P 투자규모는 200억 달러를 초과, 우리나라 자원개발투자규모의 3~4배에 달함

### □ 정책 일관성 부족

- 과거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 정부의 자원정책 기조가 변동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일관성 부족

### □ 공기업 중심 정책 추진에 따른 민간 투자 침체

- 민간기업은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,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리스크가 높고,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
  - 민간기업 투자는 영세한 수준이고,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은 대부분 공기업 대형화에 투입

### □ 투자 재원 마련을 위한 차입 확대로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

- 주요 3개 공기업의 총부채가 '10년 39.7조원에서 '11년 51.0조원, 부채비율은 '10년 211.0%에서 '11년 255.5%로 상승
    - 자원개발사업의 수익은 장기에 걸쳐 발생하나, 최근 외부차입 확대로 주요 공기업의 금융비용이 증가하여 이자보상배율이 악화
- \* 석유공사 이자보상배율(개별 재무제표 기준): '07년 22.5→'09년 4.7→'11년 1.7

## VI. 향후 자원개발 추진 전략

### □ 정부 주도의 장기적인 관점에서 접근

- 정부지원 등을 통한 규모확대, 민간과의 시너지창출 등 장점을 최대한 활용하되, 리스크 노출, 기술 열위, 자원민족주의 등 위협요인에 대응
- 지속적인 정부간 협의를 통해 자원부국과의 파트너십 형성

### □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원 메이저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

- 자원개발은 대규모 자본이 투입되고 리스크가 크므로 규모의 경쟁력을 갖추 수 있도록 주요 공기업에 대한 자본 확충 및 재정지원 확대
- 후발주자로서 기술개발, 전문 인력 양성 등 질적 성장 기반 마련
  - 엑손모빌 등 전통메이저는 오일쇼크 시 공격적 매장량 확보, 유가 하락 시 수익성 제고와 조직 효율성 전략을 실행하여 성장

### □ 비전통 자원 개발 및 투자 지역 확대

- 새로운 에너지원으로 각광 받는 셰일가스, 오일 샌드 등에 대한 개발과 아프리카, 북극권 등 프런티어 지역 등 진출 확대

### □ 민관일체의 협력체제를 구축, 시너지 효과 극대화

- 정부는 자원확보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외교, ODA, 정책금융 등 전략적 연대 추진을 통한 기업의 자원확보 기반 조성
  - 공기업은 경쟁력 있는 대형기업으로 육성하고,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민관 상호협력을 도모
  - 해외자원개발 프로젝트에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과 동반진출 추진

### □ Total 금융 Solution 제공 등 정책금융 역할 강화

- 원스톱 지원체제를 도입해 자원개발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금융지원
  - 탐사단계 및 지분 인수 사업 적기 지원, 개발단계사업에 대한 PF, Off-take Financing(장기구매계약 기반 금융), 생산단계사업에 대한 RBF(매장량 담보 금융) 등 금융지원 방식 다각화 및 지분투자 강화

## 1. 해외자원개발의 중요성

### □ 에너지 수입국으로서 자원개발은 필연적

- 경제 위기 지속에 따른 자원 가격의 변동성 확대와 자원 무기화 경향으로 자원 확보 경쟁이 격화되는 가운데, 에너지 자원 수입 의존적인 우리 경제의 지속 성장을 위해서 안정적인 해외자원개발이 필수
- '11년 에너지 및 6대 광종 해외 수입액은 1,678억불로서 전체 수입액의 32%를 차지하고 있으며, 유가 10달러 상승시 무역수지 0.9%p 악화<sup>1)</sup>, 자원 수입가격 10% 상승시 제조업 생산비 1.7% 증가<sup>2)</sup>

### □ 경제 성장의 신동력 및 무역 2조불 달성의 선결 조건

- 전기전자, 자동차 등 우리나라의 기존 주력 산업을 대체할 새로운 장기 성장 동력으로서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부각
- 포춘지 선정 글로벌 100대 기업 중 자원기업이 '05년 15개사에서 '11년 24개로 확대
- 엑손모빌의 '11년 상류 부문<sup>3)</sup> 순이익은 344억불로 전체<sup>4)</sup> 순이익의 79.6%에 달하며, 이는 삼성전자 전체 순이익 91억불의 1.5배 해당
- 우리나라가 이미 경쟁력을 보유한 플랜트, 인프라 건설 등과 연계한 시너지 창출 가능
- 자원개발에 활용되는 Drillship, FPSO 등 해양플랜트 시장은 '10년 1,400억불에서 '30년 5,000억불로 성장이 전망되며, 국내 조선사는 해상플랫폼 분야에서 강점을 보유<sup>5)</sup>

1) 국제금융센터 “고유가에 따른 외환시장 영향 분석”(12. 3. 26)

2) 산업연구원 “국제 원자재 가격 상승의 산업별 영향과 대응방안”(11. 4. 20)

3) 석유·가스산업은 크게 ① 유전 탐사·개발·생산 ② 원유 수송 ③ 원유 정제 ④ 석유제품 수송 및 판매로 나눌 수 있는데 이 중 ①을 상류(Upstream)라고 함.

4) 엑손모빌의 전체 매출액은 4,335억불, 당기순이익은 411억불



## 2. 최근 해외자원개발의 특징 및 분석 배경

### □ 금융위기 이후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주도

- 자원개발사업은 사업 리스크가 높은 사업으로서 공공 부문을 통한 투자가 필요한 분야이며, 중국과 일본 등 경쟁국들도 안정적 에너지 자원 확보를 위해 국영석유기업 중심의 해외자원개발을 적극 추진
- CNPC 등 중국 국영기업은 '09~'10년 자원기업 인수에 476억불 투자 하였으며, 일본의 경우 기업 통합을 통해 국영기업 INPEX 대형화를 추진하여 50위권의 석유기업으로 성장
- 우리나라의 경우, 최근 3년간 석유공사를 중심으로 한 공기업이 해외 자원개발 투자의 60%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바, 공기업의 해외자원 개발 현황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향후 중장기 자원개발의 방향과 전략 등 시사점 도출

## 3. 통계 활용상의 주의점

### □ 수출입은행이 작성하고 있는 해외직접투자통계를 활용하여 분석

- 한국 표준산업분류 상의 광업 투자를 기준으로 분석하였으며, 통계 작성 방법 및 기준 차이에 따라 지식경제부 통계와 상이
- 해외자원개발은 통상 직접투자 형태로 이루어지나, 지분율이 10%가 넘지 않는 지분 참여의 경우 해외직접투자 통계에 포함되지 않음.
- 투자금액은 송금(실행) 기준이며, 해외사무소를 제외한 현지법인만을 분석 대상으로 함.
- 투자 국가나 지역 분석의 경우,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고 이를 경유 하여 다른 국가에 투자하는 사례를 반영하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음.

---

5) 국내 조선 3사의 '11년 해양플랜트 수주액은 257억불로 일반 상선 등 선박 수주액 249억을 초과 (지식경제부 '해양플랜트산업 발전방안')

## II

## 해외자원개발 투자 현황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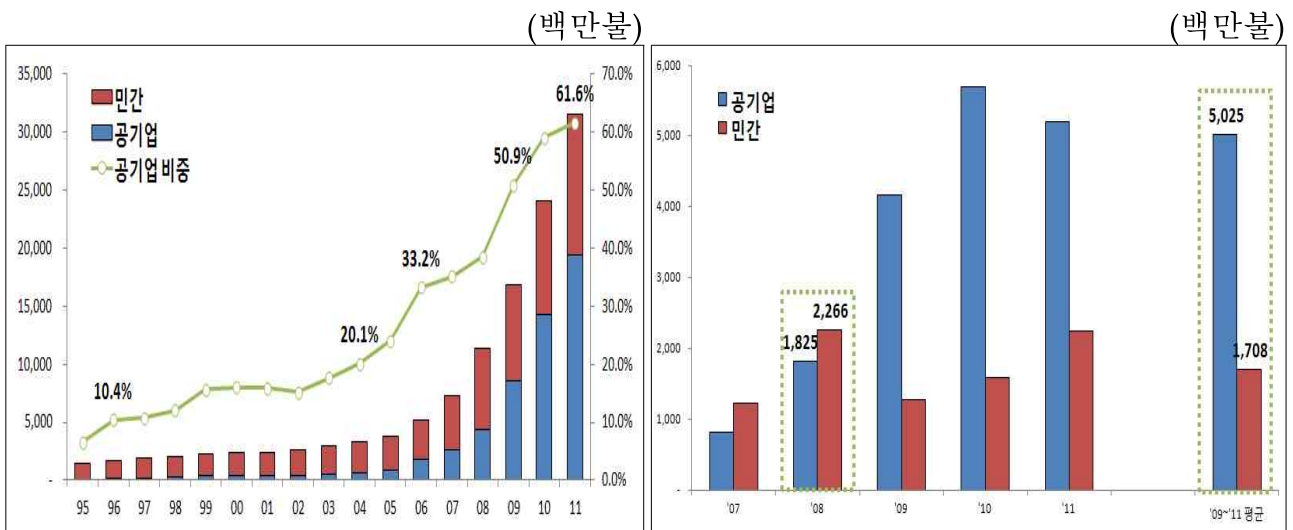
### 1. 개요

-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액은 '11년말 기준 194.6억불로 우리나라 전체 해외자원개발 누적투자 금액의 61.6% 차지
-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누적 투자액 중 공기업이 차지하는 비중이 '96년 10% 초과, '04년 20% 초과, '06년 30% 초과에 이어 '09년에는 85.5억불로 50%를 초과하였으며, '11년은 61.6% 기록
- 자주개발률 제고를 위해 자원개발 공기업의 대형화·전문기업화를 추진하고 있는 정부 정책과 연관되어 최근 투자가 크게 증가
- 민간 부문의 투자는 '08년 22.7억불로 최고치를 기록한 이후 금융위기 이후인 '09~'11년에는 연 평균 17.1억불로 투자금액이 감소하였으나, 공기업은 18.3억불에서 50.3억불로 증가
- 최근 5년간 우리나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금액의 연평균 증가율은 38.1%이며, 이 중 공기업은 58.7%로 민간기업 16.3%보다 약 3.6배 높음.

### 공기업의 해외자원개발 투자 동향

<누적 투자금액>

<연간 투자금액>



## □ 총 31개국 앞 97개 현지법인 설립 참여

- 우리나라의 자원개발 현지법인 630개사 중 15.4%에 해당하는 97개사에 지분 투자하였으며, 이 중 74개사는 주투자자<sup>6)</sup>로서 설립
- 총 31개국에 투자하였으며, 상위 5대 투자국가는 캐나다(48.4억불), 영국(38.8억불), 미국(14.3억불), 호주(16.9억불), 네덜란드<sup>7)</sup>(3.1억불) 순

## 2. 기관별 투자 현황

### □ 총 10개 기관이 해외자원개발 사업에 참여

- 석유공사, 가스공사, 광물자원공사의 투자금액이 전체 공기업 투자금액의 93.9% 차지
  - 이외 공기업은 한국전력과 발전 자회사(남동발전, 남부발전, 서부발전, 중부발전, 동서발전, 한전원자력연료)
- '11년에는 석유공사가 전년대비 34.0% 감소, 가스공사는 332.6% 증가, 광물자원공사는 78.5% 증가
  - 가스공사와 광물자원공사 투자금액은 역대 최고치에 해당

### 공기업별 해외자원개발 동향

(백만불)

|             | '07   | '08   | '09   | '10   | '11   | 누적     |
|------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공기업 합계(A)   | 821   | 1,825 | 4,167 | 5,699 | 5,209 | 19,458 |
| 민간 기업(B)    | 1,232 | 2,266 | 1,272 | 1,596 | 2,255 | 12,107 |
| 전체(C=A+B)   | 2,054 | 4,092 | 5,440 | 7,295 | 7,464 | 31,565 |
| 공기업 비중(A/C) | 40.0% | 44.6% | 76.6% | 78.1% | 69.8% | 61.6%  |

주: 한국전력은 발전 자회사의 투자 포함

6) 한국 공동투자자 중 최대 투자자

7) 네덜란드는 조세 피난처로 활용되는 국가 중 하나로서 최종투자국은 실제와 다름.

### 3. 주요 특징 및 최근 동향

#### 가. 투자 규모

##### □ 투자의 대형화

- 공기업의 현지법인(사업)별 평균 투자금액은 263백만불로 민간기업의 현지법인(사업)별 평균 투자금액 22백만불의 12.1배
- 석유공사가 인수한 캐나다 Harvest, 영국 Dana 투자규모는 자원개발을 위해 설립한 우리나라 현지법인의 22.8%, 공기업 현지법인의 36.9%에 달하며, 전 업종 현지법인 중 투자규모 1위와 3위에 해당
- '07년 설립한 현지법인에 대한 평균 투자금액은 97백만불 수준이었으나 투자규모 대형화로 '11년 설립한 현지법인은 270백만불로 증가

#### 나. 지역별

##### □ 선진국 투자 비중 높아

- 공기업은 북미 37.4%, 유럽 28.4%로, 민간 기업의 아시아 24.0%, 북미 22.6%, 중남미 22.8%에 비해 선진국 투자 비중이 높음.
- 지정학적 안정성, 시장 투명성 등으로 투자 매력도가 높아 전세계적으로 자원 개발투자가 가장 활성화되어 있는 북미 지역 투자 확대

#### 지역별 투자 동향

|      | '07 | '08 | '09   | '10   | '11   | (백만불)<br>누적 |
|------|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-----|
| 북미   | 44  | 956 | 2,848 | 1,090 | 2,029 | 7,269       |
| 유럽   | 91  | 121 | 568   | 3,215 | 1,365 | 5,530       |
| 아시아  | 224 | 291 | 238   | 703   | 198   | 2,101       |
| 대양주  | 77  | 130 | 158   | 316   | 1,113 | 1,845       |
| 아프리카 | 177 | 131 | 238   | 202   | 300   | 1,382       |
| 중남미  | 114 | 138 | 56    | 70    | 85    | 721         |
| 중동   | 93  | 60  | 62    | 104   | 120   | 610         |

## 다. 투자 유형별

### □ 탐사 광구에서 생산광구 인수 및 M&A 중심으로 전환

- 과거에는 불확실성이 높고 장기간이 소요되나 초기 투자비가 낮은 탐사 광구 중심으로 투자를 하였으나, 최근에는 자주개발률 도모를 위해 생산광구나 자원 기업의 M&A에 주력

### □ 단독 투자 비중 늘어

- 공기업은 단독투자가 68.3%에 달해 민간기업 31.8%의 2배 이상 높음.
  - 과거에는 해외 기업이 주도하는 사업에 국내 민간기업과 함께 참여하는 공동투자나 합작투자가 많았으나, 최근에는 공기업 독자적으로 투자 및 운영하는 비중이 상승

### 형태별 투자 동향

(백만불)

|       | '07 | '08   | '09   | '10   | '11   | 누적     |
|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단독    | 82  | 1,086 | 2,851 | 4,550 | 4,128 | 13,298 |
| 공동·합작 | 143 | 205   | 202   | 78    | 47    | 906    |

주: “공동투자”는 국내투자자와, “합작투자”는 해외기업과 투자하는 경우 의미

### <<투자 형태별 사례>>

#### ■ 공동·합작 투자

- 예멘 LNG: 프랑스 Total / 가스공사, 석유공사, SK 등
- 암바토비 니켈 광산: 캐나다 Sheritt / 광물자원공사, 삼성물산 등
- 베트남 11-2 광구: 석유공사, LG상사, 대성산업, 서울도시가스

#### ■ 단독 투자

- 영국 DANA사, 캐나다 Harvest사 인수: 석유공사
- 호주 CLNG 프로젝트: 가스공사

## 라. 업종별 특징

### □ 원유 및 천연가스 투자가 대부분 차지

- 공기업은 원유·천연가스 86.2%, 석탄 6.1%, 기타 비철금속(니켈, 구리, 동 순)가 5.7%, 우라늄·토륨 1.3% 비중으로 투자
- 민간 기업은 원유·가스가 61.7%를 차지하고, 철이 13.1%, 석탄이 11.6%를 차지하는 등 공기업 대비 광물 투자 비중이 더 높음.
- '07년과 비교하면 원유·가스 투자 비중이 높아지고, 비철금속 등 광물 투자가 다소 감소
- 최근에는 석유공사의 미국 Eagle Ford(세일오일 광구), 가스공사의 호주 CLNG 프로젝트(석탄층 메탄가스) 투자 등 비전통 자원<sup>8)</sup>에 대한 투자도 증가

### 업종별 투자 동향

(백만불)

|        | '07 | '08   | '09   | '10   | '11   | 누적     |
|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-|
| 원유·가스  | 618 | 1,561 | 3,587 | 4,671 | 4,701 | 16,770 |
| 석탄     | 64  | 59    | 138   | 825   | 58    | 1,190  |
| 기타비철금속 | 139 | 125   | 213   | 182   | 411   | 1,109  |
| 우라늄및토륨 | 1   | 4     | 213   | 20    | 3     | 255    |
| 기타     | 0   | 76    | 16    | 1     | 38    | 133    |

주: 업종은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소분류를 기준으로 재구성

8) 표준산업분류 상 비전통 자원과 관련한 업종은 따로 존재하지 않고 원유·가스에 포함

### III

## 투자 성과

### 1. 자주개발물<sup>9)</sup> 제고

□ (석유·가스) '07년 4.2%에서 '11년 13.7%로 상승

○ 공기업이 추진한 생산광구 인수 및 M&A가 주된 요인

- 공기업 : ('07) 5.9만b/d → ('11) 25.1만b/d ⇨ 19.2만 b/d 증가

□ (6대 전략광물<sup>10)</sup>) '07년 18.5%에서 '11년 29.0%로 상승

○ 實 수요기업인 한전 등이 본격 진출하면서 자주개발물량 증대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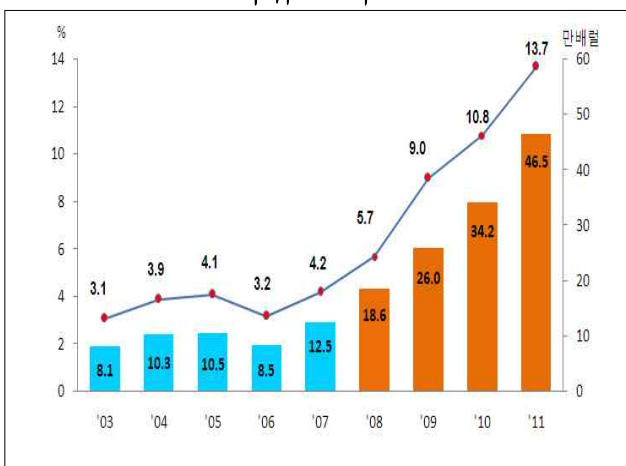
○ 특히 '07년 0%였던 우라늄 자주개발률 '11년 6.5%까지 확대

□ (리튬·희토류 등 희유금속) '07년 6.1%에서 '11년 12%로 상승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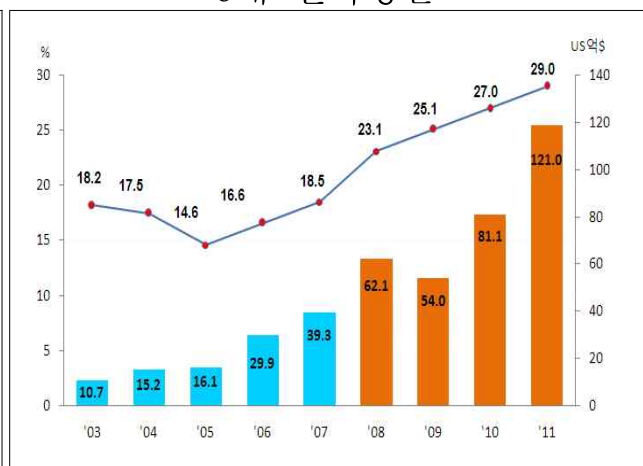
○ 2차 전지의 원료인 리튬 확보를 위해 칠레·아르헨티나 리튬광산에 신규 진출, 중국과 남아공의 희토류 광산 진출

### 자주개발물량과 자주개발률 추이

<석유·가스>



<6대 전략광물>



자료: 지식경제부

9) 자원의 자립도를 나타내는 지표로서, 자원 총 수입량 대비 국내기업이 국내외에서 개발한 자원의 총생산량을 의미

10) 유연탄, 철, 동, 아연, 우라늄, 니켈

## 2. 공기업 대형화 및 자원개발 역량 확충

### □ (개요) 해외자원개발 확대로 자산 규모 크게 증가

- '11년말 기준으로 총 자산 대비 자원개발 투자잔액은 석유공사가 64.4%에 달하며, 광물공사는 34.4%, 가스공사는 9.4% 비중을 차지하여 '07년에 비해 그 비중이 크게 상승

#### 주요 공기업의 자산 대비 해외자원개발 투자 비중

(조원, %)

|      | 자산(A) |      | 해투 잔액(B) |      | 비중(B/C) |       |
|------|-------|------|----------|------|---------|-------|
|      | '07   | '11  | '07      | '11  | '07     | '11   |
| 석유공사 | 8.4   | 23.6 | 1.3      | 15.2 | 15.0%   | 64.4% |
| 가스공사 | 12.2  | 34.2 | 0.2      | 3.2  | 1.8%    | 9.4%  |
| 광물공사 | 0.6   | 2.9  | 0.1      | 1.0  | 9.2%    | 34.4% |
| 합 계  | 21.3  | 60.8 | 1.5      | 19.4 | 7.2%    | 32.0% |

자료: 한국수출입은행 신용평가시스템(개별 재무제표 기준) 및 해외투자통계

### □ (석유공사) 대형화를 통해 '07년 90위권에서 '11년 70위권 진입

- '00년대 초중반까지 탐사광구 중심의 개발에 치중하였으나 대형화 추진으로 '08~'10년간 생산광구 중심 자산 및 기업 M&A에 집중 투자
  - 최근 3년간 105억불을 집중 투자하여 '11년말 누적투자액이 139억불에 달하며, 이는 삼성전자 95억불, 포스코 50억불보다도 큰 규모
  - 원유 매장량은 '07년 5.2억 배럴에서 '11년 12.8억 배럴로, 일일 생산량은 '07년 5만 배럴에서 '11년 22만 배럴로 증가
- 비전통 석유 및 미개발 지역 개발 사업 참여
  - '11년 4월 미국의 아나다코와 셰일오일 생산광구 지분 인수 계약을 체결하였으며, 전통 석유 개발을 위해 미개발 지역과 심해, 오지 등 프런티어 지역으로의 진출 추진



## 석유평사의 주요 투자 사업

(천배럴/일, 백만배럴)

|                | 참여  | 일생산량 | 매장량 | 비고          |
|----------------|-----|------|-----|-------------|
| 페루 Savia Peru사 | '09 | 7    | 75  | 최초 해외석유사 인수 |
| 캐나다 Harvest사   | '09 | 48   | 199 | 한국 최대 해외투자  |
| 영국 Dana사       | '10 | 48   | 244 | 적대적 M&A 방식  |
| 카자흐스탄 Altius사  | '11 | 10   | 54  |             |
| 미국 Anadarko사   | '11 | 7    | 116 | 최초 비전통자원 인수 |

자료: 석유평사

### □ (가스공사) '05년 해외자원개발 투자 재개 후 '10년부터 본격화

- '05~'09년 연간 투자액이 1억불 내외에 그쳤으나, '10년 6.9억불, '11년 19.1억불로 투자금액 크게 증가
  - 최근 동아프리카 모잠비크에서 초대형 가스전을 발견하여 우리나라 3년치 소비물량을 확보하였으며, 가스전 운영사업자로는 최초로 이라크 아카스 가스전 사업에 진출하는 등 자원개발 한 축 담당
- Value Chain 확대 등 다각화 전략 추진
  - 탐사 성공 가스전에서는 개발-액화플랜트-마케팅 등 상·하류 전 Value Chain 참여, 해외 플랜트 사업 진출 확대, 에너지 트레이딩 및 가스화학 사업 확대 등 추진

## 가스공사의 주요 투자 사업

(백만불)

|     | 사업명(계약연도)       | 단계 | 투자액   | 생산  |
|-----|-----------------|----|-------|-----|
| 이라크 | 주바이르('09)       | 생산 | 225   | '11 |
| 예멘  | 예멘 LNG('05)     | 생산 | 283   | '09 |
| 캐나다 | 엔카나('10)        | 생산 | 606   | '10 |
| 미얀마 | 미얀마A-1,A-3('01) | 개발 | 159   | '13 |
| 호주  | 호주 GLNG('11)    | 개발 | 1,050 | '15 |
| 인니  | 인니 DSLNG('11)   | 개발 | 251   | '15 |

자료: 가스공사

□ (광물자원공사) 지역별 특화 광종 거점화 추진

- '06년 투자금액이 41백만불 수준에 불과하였으나, '07년부터 크게 증가하여 '11년에는 4.7억불로 역대 최고치 기록
- 캐나다 동광개발기업 인수 등을 통해 미주지역 동벨트 구축, 호주는 스프링베일 등 13개 유연탄 개발 사업, 아프리카는 암바토비 니켈 개발 등 희유금속 개발 사업으로 거점화

광물공사 주요 투자 사업

(억원)

|       | 국명(광종명)    | 참여  | 투자액   | 비고               |
|-------|------------|-----|-------|------------------|
| 암바토비  | 마다가스카르(니켈) | '06 | 9,577 | '12년 생산(년 6만톤)   |
| 산토도밍고 | 칠레(동,철)    | '11 | 2,187 | 탐사중('15년 개발예상)   |
| 캡스톤   | 캐나다(동)     | '11 | 1,961 | 연산 4.1만톤 규모      |
| 블레오   | 멕시코(동)     | '08 | 937   | '13년 생산(년 3.8만톤) |
| 나라브리  | 호주(유연탄)    | '09 | 609   | 연산 600만톤 규모      |
| 몰라벤   | 호주(유연탄)    | '08 | 591   | 연산 1,200만톤 규모    |

자료: 광물자원공사

## IV

## 중국, 일본 공기업 자원개발 현황

### 1. 중국

#### □ 국영석유기업(NOC) 주도로 해외자원개발 투자 확대

- 중국 3대 NOC인 CNPC, Sinopec, CNOOC는 '80년대 초 경제체제 개혁을 추진할 당시 정부부처<sup>11)</sup>에서 분리되어 국영기업으로 전환
  - 설립 당시 CNPC는 육상 중심 유전 개발, Sinopec은 정제, CNOOC는 수심 해상 유전 개발로 업무 구분되어 있었으나, 현재는 각 기업이 유전 개발·정제·판매를 모두 담당하는 수직 통합 체제로 재편
- 국영기업 개혁 방침에 의해 '00년대 초반 홍콩, 미국 등 주식시장에 기업 공개(IPO)를 실시함으로써 부분적으로 민영화가 이루어짐.
  - 주식 상장을 통해 풍부한 자금을 확보하여 해외 자산 매입에 활용하였으며, 민영화를 통해 관료적 조직 체계를 개선
  - 최대주주인 정부와 민간 주주의 요구에 모두 부응하기 위해 정부의 정책 목표를 반영하는 동시에 기업 이익을 추구
- 중국 NOC는 국제석유기업과의 경쟁을 최소화할 수 있는 전략 국가들을 선정하여 공략하는 한편, 풍부한 자금력을 바탕으로 생산자산 및 기업 M&A를 적극 추진
  - 해외 석유가스 광구 자산 M&A 투자액은 '09년 182억 달러(전세계 투자액 1,440억불 중 13% 차지), '10년 294억불 수준

#### □ 금융 지원 및 Loan for oil/gas 계약 등 정책금융기관 공조

- 중국개발은행과 중국수출입은행은 NOC와 전략적 동맹관계를 맺는 등 투자 파트너의 역할 수행

11) 석유산업부(Ministry of Petroleum Industry)와 화학산업부(Ministry of Chemical Industry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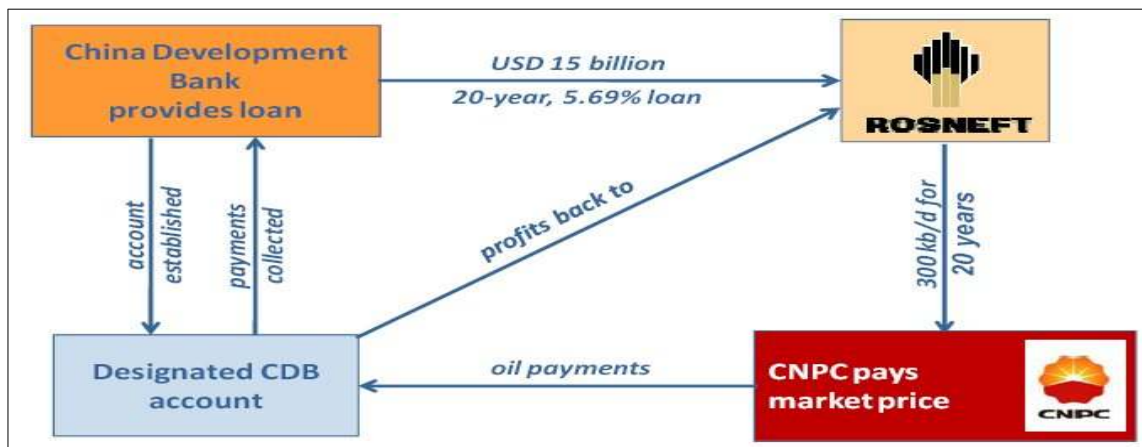
- 정부 주도 하에 NOC의 해외자원개발 확대를 위한 저리 자금을 제공하는 한편, 자원부국에 대한 'Loan for oil/gas' 전략을 통해 에너지 자원의 장기공급 확보에 기여

### <<중국의 'Loan for oil/gas' 전략>>

#### ■ 원유나 가스로 대출금을 상환받는 자원담보부 차관

- '09년 중국은 중국개발은행을 통해 Rosneft사에 150억불을 제공하고, 러시아는 중국에 3십만 b/d의 원유로 20년간 상환

#### 중국-러시아간 계약 구조



자료: IEA

#### ■ 자원부국이 자금은 필요하나 생산 자산 매각을 꺼리는 경향이 커지자 중국은 Loan for oil/gas 계약을 자원 확보 대안으로 활용

- '09년 1월 이후 러시아, 베네수엘라, 앙골라 등 자원 부국과 총 12건의 계약을 체결, '10년말 기준 대출 규모가 770억불에 달함.

## 2. 일본

### □ 핵심기업 INPEX와 민간 종합상사 중심으로 해외자원개발 추진

- 메이저급에 준하는 핵심기업 육성을 위해 기업통합을 통해 국영기업 INPEX 대형화를 추진하여, 현재 50위권의 석유기업으로 성장

- INPEX 통합 후 한때 정부 지분율이 50%가 넘었으나, 지속적인 지분매각을 통해 현재 지분율은 18.9%로 축소<sup>12)</sup>
- INPEX는 현재 일본석유기업 전체 생산량<sup>13)</sup>의 약 35%를 담당하고 정부와 독립된 석유개발 공기업으로서 경영판단을 독자적으로 수행
- INPEX의 '11년 E&P 투자금액은 31억불 규모
- 일본 해외자원개발은 핵심기업 INPEX를 중심으로 하되, 민간기업 주도의 원칙을 취하여 자원개발의 효율성 추구
  - 자원개발에 참여하는 민간기업 대부분은 종합상사<sup>14)</sup>들로 종합상사 최대 강점인 해외네트워크를 활용하여 세계 각지의 자원개발권 확보

#### □ 정책금융기관을 통한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

- 정책금융기관들이 공조하여 중장기 대형 자원개발 프로젝트 전단계에 대하여 신속하게 거액의 금융지원을 제공하는 원스톱 지원체제 구축
  - JOGMEC은 탐사 및 개발사업에 대한 출자, 용자, 보증 등을 제공하며, 최근에는 출자 기능을 지속 강화하는 추세
  - JBIC은 주로 용자를 통한 자금지원을 하고 있으며, 금년 독립 법인화와 함께 자원개발 등 전략적 해외 투융자에 대한 지원 기능을 더욱 강화할 방침

#### <<일본 INPEX사 투자 및 조달 계획>>

- INPEX는 '10년에서 '16년까지 7년간 4조엔을 투자하여 '20년까지 80만~100만 b/d 달성 목표
  - 주식 공모, 보유 현금, 금융기관 차입 등을 균형있게 활용할 예정이며, 차입의 경우 JBIC, JOGMEC 등 정책 금융기관과 공조 계획

12) 다만 경제산업성이 특별주 1주를 보유하고 있어, 정관에 따라 주요 의사결정 사항은 주주 총회, 이사회 뿐 아니라 특별주에 대한 승인 필요

13) '09년 일본 전체 석유생산량은 115만b/d

14) 미쓰비시, 미쓰이물산, 이토추, 스미토모, 마루베니 등

## 1. 투자 영세성 및 자원 메이저 기업의 부재

-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이 최근 크게 증가하고 있으나, 선진국 대비 여전히 미미
  -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은 공기업 주도 하에 '07년 21억 달러에서 '10년 75억 달러로 4배 가까이 증가하였으나, ExxonMobil, Shell 등의 슈퍼메이저급 1개 사의 연간 E&P 투자규모는 200억 달러가 넘어, 우리나라 전체 자원개발투자규모의 3~4배에 달함

### 주요 메이저 기업의 E&P 투자 규모

(백만불)

|            | 2009   | 2010   | 2011e  |
|------------|--------|--------|--------|
| BP         | 15,737 | 18,390 | 18,000 |
| Chevron    | 14,114 | 18,904 | 22,600 |
| ExxonMobil | 20,850 | 23,275 | 25,613 |
| Shell      | 24,826 | 21,441 | 23,000 |
| Total      | 13,688 | 18,630 | 20,155 |

자료: IHS Herold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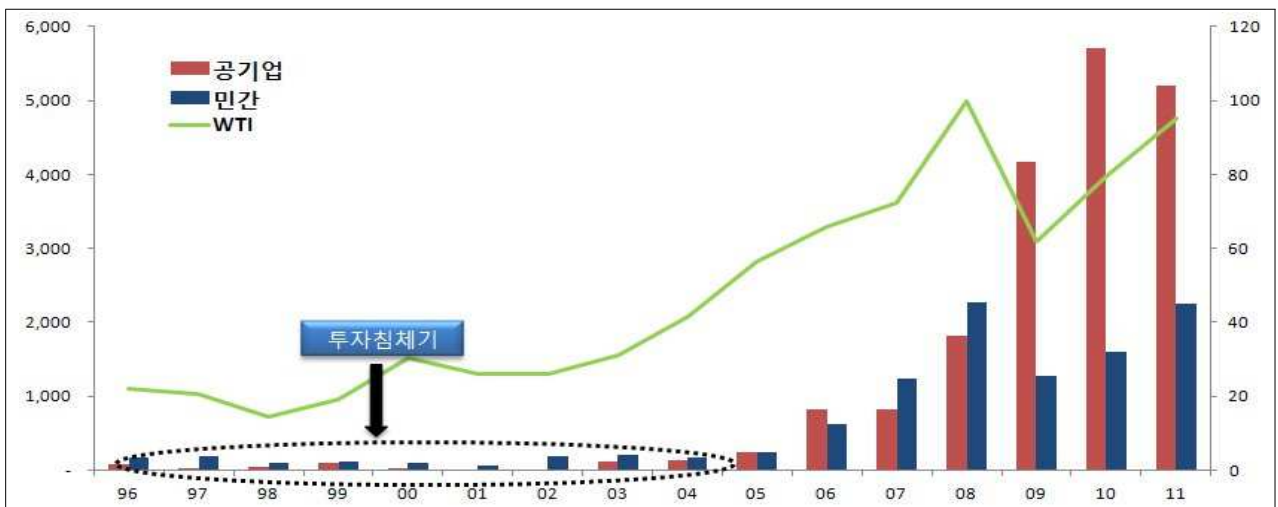
- 석유공사 대형화 등으로 최근 비약적 성장에도 불구하고, 메이저 기업 대비 생산규모, 기술력 및 정보력, 사업추진 경험 측면에서 열세
  - Repsol(스페인), Statoil(노르웨이) 등 중견 기업 1개사의 생산규모가 100만b/d이고, ExxonMobil 등 슈퍼 메이저 생산규모는 250만b/d로 석유공사 생산량 22만b/d과 큰 격차
  - 해외 주요 메이저 기업들의 자원개발 탐사 성공률이 20~30%에 달하는데 비해 국내 기업 성공률은 10%대에 그치는 등 기술력이 선진국 대비 40~60% 수준에 불과
  - 과거 국내기업의 해외자원개발 사업이 대부분 단순지분참여 방식으로 이루어져, 사업권을 확보하여 직접 운영한 사업경험 부족

## 2. 정책 일관성 부족

- 과거 국제유가 향방에 따라 정부의 자원정책 기조가 변동하는 등 적극적인 해외자원개발 정책의 일관성 있는 추진 부족
  - '70년대 두 차례의 오일쇼크 이후 적극적 자원개발 정책을 추진한 바 있으나, '90년대 말 외환위기와 저유가 지속으로 해외자원 개발에 소극적이었다가 '00년대 중반 이후 자원 외교와 지원책을 다시 강화
  - 자원 가격의 상승이 본격화되지 않았던 '00년대 초반까지 해외자원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지 않음으로써 광구 선점에 실패

### 국제유가 및 해외자원개발 추이

(백만불, 불/배럴)



## 3. 민간 투자 침체

- 공기업 중심 정책 추진에 따른 민간 투자의 침체
  - 국내 민간기업은 자원개발사업에 대한 관심이 높으나 대규모 자본이 필요하고, 투자금 회수에 장기간이 소요되는 등 사업 리스크가 높고, 전문 인력도 부족하여 투자가 쉽지 않은 상황
  - 최근 민간기업 투자가 증가하고 있으나 여전히 영세한 수준이며, 그동안 정부의 해외자원개발 자금지원은 대부분 공기업 대형화에 투입되어 민간기업 지원은 우선 순위에서 밀림.

□ 탐사광구 대형화, 광권확보 비용이 높아지고 있는데 반해 정부의 해외자원개발을 위한 재원 규모는 정체되어 있는 상황

- 정부는 에특자금을 통해 국내 기업의 탐사활동을 지원하고 있으나 그 규모가 작은데다 최근에는 점차 축소
  - '10년 에특자금 규모는 267백만불로 '07년 454백만불에 비해 감소하였으며, '10년 기준 우리나라 해외자원개발 투자액의 3.7%에 불과
  - 과거에는 개별 사업비의 70~80%에 해당하는 금액을 에특자금 용자로 충당했으나 최근 30% 수준으로 하락
- 자원개발펀드는 민간의 풍부한 유동자금을 활용하기 위해 도입되었으나 건당 투자금액이 크지 않고, 펀드 조성에 참여한 파트너들이 많아 투자 의사결정이 오래 걸리는 등의 제약사항으로 활용 부진

#### 4. 공기업 재무구조 악화

□ 투자 재원을 외부 차입에 주로 의존

- 주요 공기업의 총부채는 '10년 39.7조원에서 '11년 51.0조원, 부채비율은 '10년 211.0%에서 '11년 255.5%<sup>15)</sup>로 상승
  - 자원개발사업의 수익은 장기에 걸쳐 발생하나, 최근 외부차입 확대로 매년 발생하는 금융비용은 크게 증가
  - 석유공사의 경우 개별재무제표 기준 이자보상배율<sup>16)</sup>이 '07년 22.5, '09년 4.7, '11년 1.7로 크게 하락

#### 재무 현황

(조원, %)

| 기 관  | 자산   |      |      | 부채  |      |      | 부채비율  |       |       |
|------|------|------|------|-----|------|------|-------|-------|-------|
|      | '07  | '10  | '11  | '07 | '10  | '11  | '07   | '10   | '11   |
| 가스공사 | 12.6 | 30.0 | 36.0 | 8.7 | 22.3 | 28.0 | 227.9 | 288.4 | 347.7 |
| 석유공사 | 8.4  | 26.0 | 31.6 | 3.7 | 15.9 | 20.8 | 72.4  | 156.1 | 193.2 |
| 광물공사 | 0.8  | 2.5  | 3.3  | 0.4 | 1.5  | 2.2  | 103.4 | 167.6 | 186.4 |

주: '07년은 개별 재무제표, '10~'11년은 연결 재무제표 기준

15) 주요 자원기업 부채비율: 엑손모빌 106%, 페트로차이나 77.1%, INPEX 27.8%

16) 영업이익을 지급이자 비용으로 나눈 값으로, 기업의 채무상환능력을 나타내는 지표



## VI

## 향후 자원개발 추진 방향

### □ 공기업 자원개발 투자는 정부 주도 하에 장기적인 관점 접근 필요

- 자주개발률 제고 뿐만 아니라 사업 수익성, 기술 노하우 습득 등에 관한 체계적 관리를 장기적 관점에서 일관되게 추진
- 우리 공기업이 갖고 있는 장점과 기회 요인을 최대한 활용하되, 투자 확대에 따른 리스크 노출, 비영리적 목표와 관료적 조직체계에 따른 운영 효율성 부족 등 약점과 위협 요인에 대한 대응 모색

### 공기업 해외자원개발의 SWOT 분석

|  |   |
|--|---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정부 지원 통한 공격적 규모 확장</li> <li>◇ 전략적, 장기적 의사결정</li> <li>◇ 정부 신인도 활용으로 저리자금 조달</li> </ul>    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공격적 투자로 높은 리스크 노출</li> <li>◇ 비영리적 목표 및 효율성 부족</li> <li>◇ 기술력 열위 및 하류 사업 연계 미비</li> </ul> |
| S(강점)  | W(약점)   |
| O(기회)  | T(위협)   |
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우리 경제의 영향력 증대</li> <li>◇ M&amp;A 통한 기술·경험 축적 기반 마련</li> <li>◇ 민간기업과의 시너지 창출 가능</li> </ul> |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◇ 세계 경제 둔화 우려</li> <li>◇ 자원 민족주의 및 중국의 자원선점</li> <li>◇ 신재생 에너지 수요 증가</li> </ul>            |

- 특히 고유가, 기술 발전에 따라 채산성이 증가하면서 신 자원으로서 부각되고 있는 비전통자원 개발에 대한 구체 전략 및 정책지원 필요
- 전 세계적으로 비전통 자원에 대한 투자 비중은 과거 15%대에서 '10년 26%로 크게 증가하였으며, EIA는 세계 석유 생산량 중 비전통 석유 생산량 비중이 '10년 약 3%에서 '30년 약 8%로 증가 예상

### □ 국제 경쟁력을 갖춘 자원 메이저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할 필요

- 공기업의 자원개발 확대와 관련한 부정적 시각에도 불구하고, 자원개발 기업의 육성으로 메이저 기업에 견줄만한 경쟁력 있는 기업을 정책적으로 육성하는 것이 급선무

- 엑손모빌, 쉘, 등 전통형 메이저 기업들은 오일쇼크, 자원민족주의 등 시장 위협을 극복하고 시대별로 유연한 경영전략을 수립·실행하여 성장 지속

### 메이저 기업의 시대별 핵심 경영전략

|             | 특징                      | 전략                   | 세부 내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|
|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|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-|
| '74<br>~'82 | 오일쇼크로 인한 공급 불안 및 유가 급등락 | 공격적 매장량 확보 및 경영범위 확장 | 상류 개발 대규모 투자<br>공격적 사업범위 확대     |
| '83<br>~'00 | 유가 하향 안정화 및 석유산업 구조조정   | 수익 내실화 및 구조조정        | 석유·가스·화학 중심 사업 재편성<br>조직 효율성 추구 |
| '03<br>~'08 | 세계 경제 호황에 따른 신고유가       | 기업 거대화 및 기후 변화 대응    | M&A를 통한 대형화<br>비전통/신재생에너지 투자 강화 |

주: 에너지경제연구원 재구성

- 스페인 렘솔, 이탈리아 ENI 등 유럽 후발형 메이저 기업은 정부의 자원외교, 기업 통합, 기술력 제고 등을 통해 빠르게 성장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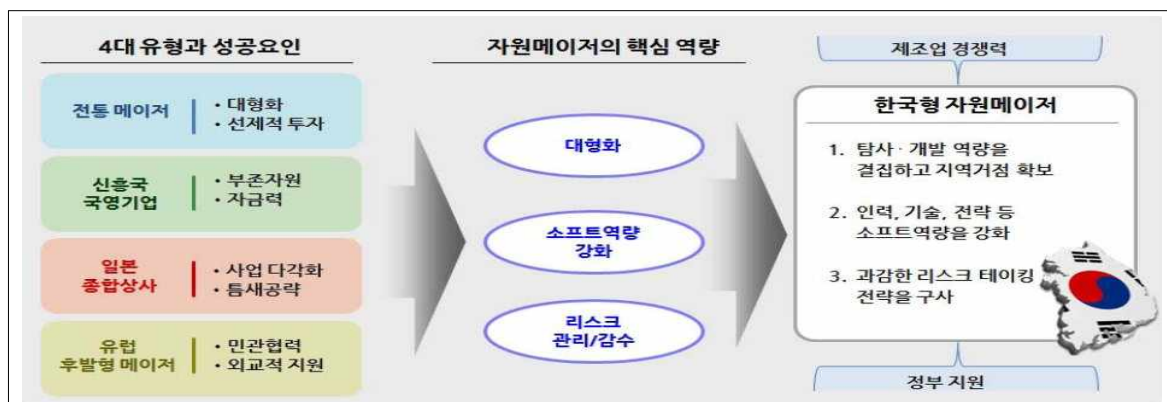
#### <<유럽 후발형 메이저 기업 성장 사례>>

- 스페인과 이탈리아는 국영기업 육성을 통해 민영화 및 글로벌화를 추진하여 후발형 메이저로 도약
  - 렘솔(스)과 ENI(이)는 국영석유기업이었으나 정부 지분의 단계적인 매각, 사업구조조정을 통해 수익성 개선
  - 정부의 자원외교를 바탕으로 메이저들의 진출이 곤란했던 지역(남미, 구소련, 아프리카 등)에 대한 진출 기반 마련
  - 하류 부문(정유, 석유화학, 유통, 발전)의 기업을 통합하여 상류부문(탐사, 개발사업)의 높은 리스크를 분산
  - 기술개발에 적극 투자하여 전통 메이저와 유사한 수준의 기술을 확보하여 신흥지역 자원개발 사업에 적극 활용

- 메이저 기업 육성에 있어 규모의 대형화 뿐만 아니라 기업 공개를 통한 사업 투명성 제고, 건설·플랜트 등 민간기업과의 시너지 효과 극대화 등 민관 협력체제 구축, 정책금융과의 공조 등을 추진하여 우리 실정에 맞는 한국형 자원메이저 육성 전략을 수립

### <<한국형 자원메이저 육성 전략>>

- 삼성경제연구소는 한국 자원메이저 육성을 위해 탐사·개발 역량을 결집하고 지역 거점 확보, 인력·기술·전략 등 소프트 역량 강화, 과감한 리스크 테이킹 전략 등을 제안



자료: 삼성경제연구소

### □ 기업 공개 등을 통해 재무건전성을 조율하고 사업 투명성을 제고

- 기업 공개 또는 민간 자원개발 기업과의 공동 출자 등을 통해 건전한 재무상태를 유지하고 기업의 투명성과 운영 효율성을 제고
- 중국 국영석유기업들은 홍콩, 유럽 등지에 주식을 상장하여 풍부한 자금을 확보하고 이를 통해 해외투자를 확대하였으며, 일본 INPEX는 미쓰비시, 미쓰이 등이 공동출자
-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정부 소유지분의 증가는 기업의 매출액 및 효율성에 부정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분석<sup>17)</sup>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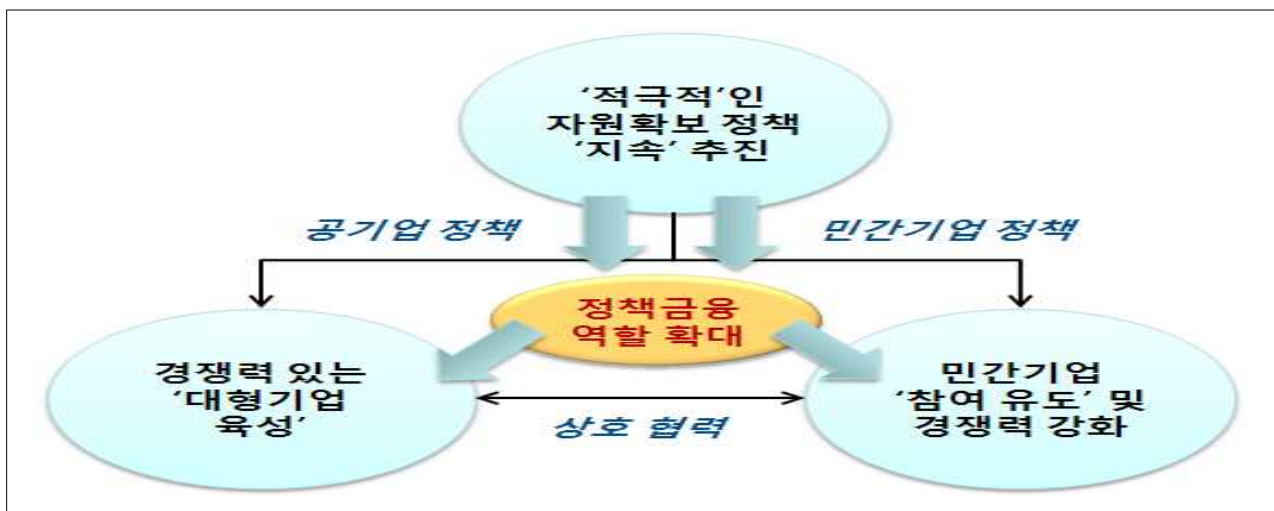
17) 에너지경제연구원 “해외자원개발 전략연구: 국영자원개발기업 성장전략 연구:”

- 석유 비축 사업 등 공공 성격이 강한 부문과 자원개발 부문을 분리하여 자원개발 전문기업을 별도 설립하는 방안도 고려
- 민간 공동 출자를 통한 자본의 결집과 더불어 플랜트, 건설, 무역, 등 민간 기술력과 사업 네트워크 공유

#### □ 민관일체의 협력체제를 구축하여 시너지 효과를 극대화

- 정부는 자원확보 확대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자원외교, ODA, 정책금융 등 전략적 연대 추진을 통한 기업의 자원확보 기반 조성
- 공기업은 경쟁력 있는 대형기업으로 육성하고, 민간기업의 사업 참여를 유도하여 경쟁력 강화를 지원하는 등 민관 상호협력을 도모
- 특히, 자원 개발 및 생산에 있어 건설, 해양플랜트 등에서 세계적 경쟁력을 갖춘 우리 기업과 동반진출 추진

#### 민관일체의 협력 체제



#### □ Total 금융 Solution 제공 등 정책금융기관 역할 강화

- 수은 등 정책금융기관이 원스톱 지원체제를 도입해 자원개발 전단계에 걸쳐 다양한 금융지원 방식을 제공하는 등 역할 확대
- 탐사단계 및 지분 인수 사업 적기 지원, 개발단계사업에 대한 PF, Off-take Financing(장기구매계약 기반 금융), 생산단계사업에 대한 RBF(매장량 담보 금융) 등 금융지원 방식 다각화 및 지분투자 강화

- 공기업이 인수한 지역별 거점 기업을 통한 사업 확대 가능성이 높으므로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통해 시추설비 등 도입, 운영자금, 국내 수입 등에 필요한 금융 수요에 선제적으로 대응

○ 자원개발 공기업과 정책금융기관과의 파트너십 구축 필요

- 정책금융기관으로부터 Credit Line 설정 등을 통해 금융 수요 발생 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협조 관계를 구축하고, 시장·법률 등 정보 공유 강화 및 세미나, 포럼 등 채널 확대를 통해 상호 유기적 네트워크를 구축

<참고자료>

공기업의 국가별 해외자원개발 동향

(백만불)

|          | '07   | '08     | '09     | '10     | '11     | 누적       |
|----------|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|----------|
| 캐나다      | 15.9  | 30.2    | 2,351.9 | 1,089.1 | 1,063.2 | 4,842.3  |
| 영국       | 0.0   | 0.0     | 0.0     | 2,996.5 | 751.0   | 3,877.8  |
| 미국       | 28.3  | 925.4   | 496.4   | 0.8     | 965.4   | 2,426.8  |
| 오스트레일리아  | 63.5  | 102.8   | 80.9    | 289.1   | 1,098.0 | 1,685.2  |
| 네덜란드     | 25.0  | 14.9    | 416.7   | 217.4   | 614.3   | 1,309.4  |
| 베트남      | 197.4 | 187.1   | 114.6   | 107.8   | 98.7    | 1,034.3  |
| 마다가스카르   | 134.4 | 86.1    | 208.2   | 165.8   | 296.2   | 917.6    |
| 인도네시아    | 0.0   | 0.1     | 57.8    | 518.2   | 9.1     | 662.3    |
| 페루       | 58.5  | 76.1    | 36.7    | 43.8    | 45.7    | 414.4    |
| 예멘       | 93.3  | 37.6    | 0.0     | 13.9    | 0.0     | 315.5    |
| 이라크      | 0.0   | 22.8    | 61.7    | 89.9    | 120.4   | 294.8    |
| 리비아      | 30.8  | 35.5    | 23.9    | 13.3    | 0.1     | 264.3    |
| 말레이시아    | 25.8  | 73.3    | 36.7    | 49.5    | 38.5    | 253.3    |
| 사이프러스    | 66.2  | 105.9   | 5.3     | 1.0     | 0.0     | 195.4    |
| 버뮤다      | 55.2  | 21.9    | 0.0     | 7.5     | 0.0     | 179.2    |
| 마셜군도     | 13.7  | 26.9    | 77.1    | 26.6    | 15.4    | 159.6    |
| 나이지리아    | 11.9  | 9.0     | 6.2     | 6.3     | 3.3     | 150.7    |
| 프랑스      | 0.0   | 0.0     | 145.9   | 0.0     | 0.0     | 145.9    |
| 멕시코      | 0.0   | 39.6    | 2.4     | 0.6     | 38.0    | 80.5     |
| 미얀마      | 0.0   | 0.0     | 3.1     | 23.5    | 49.1    | 75.7     |
| 중국       | 0.4   | 30.2    | 0.0     | 2.1     | 2.2     | 46.4     |
| 카자흐스탄    | 0.0   | 0.0     | 25.5    | 2.1     | 0.0     | 27.5     |
| 베넌       | 0.0   | 0.0     | 0.0     | 0.0     | 0.0     | 27.4     |
| 남아프리카공화국 | 0.0   | 0.0     | 0.0     | 16.2    | 0.0     | 16.2     |
| 칠레       | 0.0   | 0.0     | 0.0     | 16.0    | 0.0     | 16.0     |
| 영국령 버진군도 | 0.0   | 0.0     | 14.8    | 0.0     | 0.0     | 14.8     |
| 아르헨티나    | 0.6   | 0.0     | 0.0     | 0.0     | 0.0     | 10.9     |
| 이집트      | 0.0   | 0.0     | 0.0     | 0.0     | 0.0     | 6.3      |
| 볼리비아     | 0.0   | 0.0     | 1.7     | 2.6     | 0.9     | 5.1      |
| 우즈베키스탄   | 0.4   | 0.1     | 0.0     | 0.0     | 0.0     | 1.5      |
| 터키       | 0.0   | 0.0     | 0.0     | 0.0     | 0.0     | 1.4      |
| 합계       | 821.3 | 1,825.5 | 4,167.3 | 5,699.4 | 5,209.5 | 19,458.3 |